

제공일자	2012. 5. 25(금)	담당자	전용식 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35	총 2 매

제목 :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의 시사점

금융그룹의 자본구조와 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전용식 연구위원과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은행업과 보험업을 겸영하는 글로벌 복합금융그룹인 **ING그룹의 보험사업 분리** 원인이 은행업의 부실보다는 보험사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한 근거로는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공적자금 지원 승인 이유 가운데 보험사업의 자본부족과 지주회사인 ING그룹의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은행업이 아닌 보험사업 매각을 ING가 결정했다는 점 등임.

ING그룹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표면적인 원인은 ING은행이 투자한 Alt-A RMBS(주거용모기지 담보채권)의 부실이었지만, 2008년 들어서면서 악화된 투자 유가증권의 평가손·상각과 부동산/PE 투자 손실에 따른 보험사업의 손실 악화가 ING그룹의 부실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보험사업 부실이 ING그룹의 자본구조(이중 레버리지)와 자회사간 거래를 통해 은행으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면서** 네덜란드 정부와 유럽위원회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중 레버리지란 지주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자회사인 은행과 보험회사에 자본으로 투자하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은행, 보험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버퍼기능인 자본이 이중 레버리지로 취약해졌을 수 있음. 또한 그룹내 자회사들과의 서비스·자본 거래로 높아진 상호의존성이 외부 충격을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ING그룹 사례는 **은행-보험 겸영 사업모형의 장점인 리스크 분산효과**에 따른 자본 절감 효과와 자회사간 시너지·상호의존성에서 나타나는 자본효율

성의 경우 호경기일 때는 수익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와 같은 불경기일 때에는 역으로 외부 충격을 확대 **(amplification)**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분리 사례는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하는 국내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자본구조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아직 국내 금융감독체계에서는 리스크 분산효과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중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지주회사의 자본조달 유연성이 악화될 수 있고 경영환경 급변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이중 레버리지 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ING그룹 사례는 사업모형의 단순화(Simplicity), 투명성(Transparency), 신뢰성(Reliability)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 국내 금융그룹들이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할 때 신중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KIRI Weekly를 참고하세요.

<http://www.kiri.or.kr>